고창태양광발전소 건설, 양해각서 체결

[뉴시스 2006-11-16 19:11]

【전주=뉴시스】

전북도와 고창군은 16일 오전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미국 파워라이트사와 동양기전, 국민은행, 농협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태양광발전소 건설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고창태양광발전소는 12MW규모로 연간 600가구에 전기를 공급, 에너지수입 대체액만 15억78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권철암기자 cheol@newsis.com<관련기사 있음>

高敞太陽光発電所建設のMOU(諒解覚書)締結

[Newsis 2006-11-16 19:11]

全羅北道と高敞郡は16日午前、全羅北道庁の中会議室でアメリカのPowerLight社と東洋機電、農協中央会の関係者らが参加した中で高敞太陽光発電所建設に対する諒解覚書を締結した。高敞太陽光発電所は12MW規模で年間 600世帯に電気を供給、エネルギー輸入抑制効果額だけで 15億7800万ウォンに至ることと見れる。(写真=全北道庁提供) /権轍暗記者 cheol@newsis.com<関連記事ある>

[고흥군청] 고흥군, 독일 IBC Solar사와 양해각서(MOU) 체결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12-13 20:10]

- 박병종 고흥군수『거금 솔라테마파크』건립 8천만 달러(800억원)외자유치
- 복구불능 폐석산 활용·연10억원 이상 세수증대 등 파급효과 커

고흥군은 12월11일 독일 바드쉬타펠쉬타인 市에서 박병종 고흥군수와 독일의 우도 뮈흐르스테트(Udo M?hrstedt) IBC Solar AG사 회장과「거금 솔라테마파크」건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박병종 고흥군수는 채석허가가 이미 만료된 고흥군 금산면 석산지구 4만평에 2007년 말 준공을 목표로 독일의 IBC Solar AG사로부터 8,000만 달러를 유치하여 지상 4층 건물의 홍보전시관을 갖춘 7MW 규모의「거금 솔라테마파크」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고흥군은 우주항공 중심도시 연구용역 결과 년 평균 2,564시간인 전국 최고 일조량을 이용 수년 동안 많은 문제가 야기되어왔던 금산면 석산지구를 환경복원과 연계하여 민선4기 군정 최고의 아젠다인 지역경제 살리기 방안을 검토 폐 석산 지역을 신재생 산업 단지로 조성키로 전략을 수립하고 그동안 독일의 5개 태양광 에너지 회사와 투자유치를 위한 협상을 추진해 왔었다.

따라서 IBC Solar AG사는 전 세계 10,000여개 이상의 태양광 발전소건립에 참여하였고, 세계 최대규모인 17MW급 태양광발전소를 아프리카 세네갈에 건립했으며, 특히 폐 석산지역과 유사한 지역인 스페인의 암벽위에 8MW 태양광 발전소를 설립한 사례가 있어, 박병종 고흥군수는 투자유치 1순위로 선정 수차에 걸친 의견교환(외자유치, 수익금 일부 고흥군에 환원)과 현지 답사, 타당성 조사를 통해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위한 합의를 도출하였다. 한편, 박병종 고흥군수는 취임 후 고흥군을 세계적인 친환경 지역으로 브랜드화 하기위해 이미 자연이 훼손된 금산면 채석장을 핵심지역으로 선정「거금 솔라테마파크」조성과 건강산업 및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유치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특히, 박군수는 이번「거금 솔라테마파크」조성 사업이 고흥군에서 4만평의 군 유지를 임대함에 따라 IBC Solar AG사로부터 수익금의 일부를 군 발전을 위해 환원하는 양해각서 체결로 2007년 말 준공이 되면 획기적인 세수증대가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2단계, 3단계 사업을 통해 고흥군을 우주항공산업과 함께 그린에너지·건강도시 등 세계적인 바이오 테마도시로 탈바꿈 시킬 것이라 확신하였다.
또한, 박병종 고흥군수는 지난 9일부터 독일의 세계적인 바이오 회사인 벨러르셈 회사의 유기성 폐기물 처리시설과 바드쉬타펠쉬타인에 소재한 한방요양센터를 투자가들과 함께 방문하고 향후 투자유치에 대한 발판을 마련함과 아울러 관광, 온천, 농업도시인 바드쉬타펠쉬타인 市의 게흐겐 코만 시장과 양 도시간 우호교류 증진에 대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그리고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호남 향우회와 만남을 통해 나로도 지역에 유스호스텔 건립을 위한 투자의향서와 함께 우리지역 청소년들의 해외탐방시 프랑크푸르트 호남향우회에서 체재비 및 견학비용을 일체를 부담하기로 합의를 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거금 솔라테마파크」사업은 타 지역 사례와는 달리 8,000만 달러(800억원) 전액 외자유치, 매년 10억여원 이상 군 수입, 폐 석산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등 국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천문학적 수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내년 초에 정식계약 체결과 함께 본격적인 건립공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高興郡庁] 高興郡、ドイツ IBC Solar社とMOU締結
[連合ニュース報道資料 2006-12-13 20:10]

- 朴ビョンジョン 高興郡首『コクムソーラーテーマパーク』建立 8千万ドル(800億ウォン)外資誘致
- 復旧不能の廃石山活用・年間10億ウォン以上税収増大など波及効果大きく

高興郡は12月11日ドイツバドスィタペルスィタイン市で朴ビョンジョン高興郡首とドイツのウドムィフルステトIBC Solar AG社会長と「コクムソーラーテーマパーク」建立のためのMOUを締結した。朴ビョンジョン高興郡首は採石許可が満了した高興郡錦山面石山地区4万坪に2007年末竣工を目標としてドイツのIBC Solar AG社から8、000万ドルを投資誘致して地上4階建物の広報展示館を取り揃えた7MW規模の「コクムソーラーテーマパーク」を造成する事に合意したと発表した。
高興郡は「宇宙航空中心都市研究役務調査」の結果、年平均 2564時間の全国最高レベルの日照を利用し、ここ数年間沢山の問題を抱えていた錦山面石山地区を環境復元の一環として民選4期郡政最高のアジェンダである地域経済活性化方案と連係させ、廃石山地域を新材生産業団地として開発する戦略を樹立し、ドイツの5つの太陽光エネルギー会社と投資誘致のための交渉を推進して来た。
IBC Solar AG社は全世界10、000以上の太陽光発電所建設に参加して、世界最大規模である17MW級太陽光発電所をアフリカセネガルに建立した。特に廃石山地域と類似する地域であるスペインの岩壁上に8MW太陽光発電所を設立した事例があって、朴ビョンジョン高興郡首は投資誘致1順位に選定し、数次に亘る意見交換(外資誘致、収益金一部を高興郡に還元する内容など)と現地踏査、妥当性の調査を通じて太陽光発電所建立のための合意を導いた。
一方、朴ビョンジョン高興郡首は就任後高興郡を世界的な親環境地域としてブランド化するために既に自然が毀損された錦山面石切り場を核心地域として選定、「コクムソーラーテーマパーク」造成と健康産業及びバイオ産業育成のための投資誘致に心血を傾けて来た。特に、朴郡首は今度「コクムソーラーテーマパーク」造成事業が高興郡で4万坪余の郡有地を賃貸することによってIBC Solar AG社から収益金の一部を郡の発展のために還元する覚書締結をした。これによって2007年末竣工になれば画期的な税収増大があると明らかにしながら、この事業が軌道に乗れば 2段階、3段階事業を通じて高興郡を宇宙航空産業とともにグリーンエネルギ・健康都市など世界的なバイオテーマ都市で様変りすると確信しているといった。
また、朴ビョンジョン高興郡首は去る9日からドイツの世界的なバイオ会社であるベルロルセム会社の有機性廃棄物処理施設とバドスィタペルスィタインにある漢方療養センターを投資家たちと一緒に訪問して今後の投資誘致に対する基盤を築くと同時に観光、温泉、農業都市であるバドスィタペルスィタイン市のゲフゲンコーマン市長と両都市間友好交流増進に対する方案を深く論議した。そしてドイツのフランクフルト湖南郷友会と会ってナロド地域にユースホステル建立のための投資意向書締結とともに地域青少年の海外探訪の時、フランクフルト湖南郷友会で滞在費及び見学費用を一切を負担することに合意をした。
高興郡関係者は ″「コクムソーラーテーマパーク」事業は他の地域事例とは違い8、000万ドル(約800億ウォン)全額を外資誘致、毎年10億ウォン以上郡の収入、灰石山を活用した観光資源化など国家及び地域経済に及ぶ波及効果は天文学的数字に至ることと見ている。来年初に正式契約締結とともに本格的な建立工事が始まる″といった。